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6월 9일
제목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본문	누가복음 19:28~40

녹취

• 서론 - 집중 기도하고 인도받을 시간표의 일

지금 집중 기도하고 인도받을 시간표의 중요한 기도제목과 인도받아야 할 일이 있다. 말씀가운데 교회 즉 성전의 세 가지 뜰, 기능, 전도, 선교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이유다. 그 가운데에 다락방 전체도 우리 교회도 이것은 심혈을 기울인 정도가 아니고 신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이고 절대 미션이다. 바로 램네프 일으키라, 램네프 키우라. 성전의 세 가지 뜰에 보면 세 가지 중 한 개가 아이들의 뜰, 램네프 키우는 말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램네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 늘 하는데 24 기도하자. 또 금토일시대 유초등부 중심으로 인도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도받고 있다. 신학원까지 하고 여름방학 다가오면 램네프대회 비롯해서 램네프 집중사역 한다. 금토일시대 바로 램네프를 키우는 운동이다. 언약 전달, 복음, 기도, 영적인 중요한 것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미래 망대인 램네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쓰실만한 그릇준비 벌써 된다. 하나님 들어 쓰시고 싶은데 그릇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못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면 하나님 책임이겠지만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법이 없다. 그

런데 준비가 안 되었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램네프들 미래 망대, 미래를 치유하고 살리는 미래 재앙을 막고 살리는 바로 차세대 선교사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는 램네프를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도 집중기도하자.

또 한 가지 여름 램네프 사역이 있는데 세계 램네프대회다. 이건 다락방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흐름이고 시간표다. 우리가 특별히 잘하고 잘 못하고 없는데 능력 없잖아요? 이 시간표에 이 흐름 속에 중요하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을 모으고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면 세계 램네프대회와 이 시간표를 통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뿐만 아니고 그것 할 미래 주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잘 보고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일단 세계램네프대회하면 미래 망대요 미래 주역이 될 램네프들 인도받는다. 또 미래 램네프를 키우는 기도하는 사명자인 부모님, 교회 주일학교 교사, 지도자들,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 중직자들 산업인들 다 기도하고 여기에 인도받는다. 램네프대회 인도받는다. 저도 처음에 몰라서 참석 안 했다. 기도만 하고 우리 교회 램네프 보내놓고 그런데 어느 해부터 내가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램네프대회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다. 내가 이렇게 둔했던가, 램네프대회라고 해서 램네프만 가는 게 아니다. 미스바에는 주의 종 그 시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참석하고 어른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엄마, 아빠, 부모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키우는 램네프들 다 참석했다. 다 모이라고 했다. 거기 이유가 있다. 세계램네프대회가 그런 의미다. 저와 여러분, 이를 위해 집중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계램네프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어른들 옛날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거

기에 젖어있다. 그게 망대가 되어있다. 올해는 깨어서 램네프 대회에 나도 참여해서 램네프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받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시는 램네프 대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응답을 받자. 빨리 결단하시고 등록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서론에 진짜 부탁하는데 성도님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하게 인도받자.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의미는 삶의 이유는 복음과 복음의 대열 속에 서고 거기 인도받는 것이고, 내가 직접 전도자다, 전도 제자가 되었다면 최고 축복이다.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일단 축복의 대열 라인에 세상 말로 라인을 탄다, 줄 탄다 그런데 그건 세상말이고 복음과 언약의 전도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일단은 무조건 서있어야 된다.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속에서 인도받든지, 놀든지, 잘 못하면 농땡이 치든지 일단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꼭 부탁을 드리고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부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꼭 함께 기도를 모아 주시고 24 기도하고 이번 세계램네프대회는 우리 교회 램네프들 여러분들 다 동원하고 그 방법은 헌금하는 것이다. 그다음 주에 세계 램네프대회, 여름 사역을 위해 특별헌금 드린다. 그것을 가지고 램네프 지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인도받고 우리도 다 인도받아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여기에 인도받는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여기에 거의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절대 인도받지 못하고 항상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반대의 짓을 마귀 사탄 좋아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대열 속에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다. 죽어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늘 평소에도 습관처럼 그랬는데 중요한 때 발악하는 것이다.

안 망하겠는가? 가장 철저하게 망하고 결과 비참하게 후대들까지 망하는 현장에 내보낸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다. 거의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들 300% 무능한 자들이 대신에 중요한 언약 1,3,8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대열에 서서 그대로 성령인도받았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바울과 함께 한 제자들이고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그랬다. 축복의 대열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들을 때 서론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시고 참여하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진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현을 여러분께 잘 안 한다.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프랑스 선교와 관계되어 있는데 일심, 전심, 지속, 마음 중심 다하여 프랑스 선교에 진짜 인도받고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를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헌신, 중심이 많다.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은 잘 못하는 건 분명하다. 요즘 보니까 잘 못한다기보다는 해매는 것 비슷하다. 그러나 대구, 칠곡 복음화를 두고 캠프하는데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한다. 이것을 진짜 감사드린다.

• 본론

1.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눅19:28-34)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난주 이어서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배경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은 구원 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 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핵심 사역이 남아있다. 이게 제일 정점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창 3:15 주인공, 창 6:18 방주의 주인공, 출 3:18 유월절의 양의 피

의 주인공, 사 7:14 주인공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앞두고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 과정의 본문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1)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28) 예루살렘 이르렀을 때 마지막 40일 강단 감람산에서 하셨다. 올리브 산, 감람산이다.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마을이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이다. 그즈음에 왔을 때에 제자 둘을 보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을 것이다.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제자들이 느닷없이 도둑질 해오라는 말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주인이 보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러할 때 말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 그 말씀 듣고 가서 보니 나귀가 있고 나귀를 풀어오니 주인이 묻는다.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이러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합니다. 하니까 주인이 이유도 어떤 것도 대지 않고 돈 받지 않고 헌신했다. 오늘 왜 이게 있겠는가?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니 즉시 내어줬다. 이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2) 십자가 사역의 중요한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 무

조건 이유 없이 헌신한 이름 없는 제자 -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의 대열에 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핵심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구원사역을 이루는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시다.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왕이시다. 우리의 왕으로서 하는 것이다. 보통 왕이 새로 임명되면 의식을 하는데 그중에 많이 나오는 광경이 왕이 행차하여 즉위식 하는데 들어간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사탄을 꺾으시고 사탄의 망대, 재앙, 저주를 다 꺾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해방시킨 구원의 주, 참된 왕이시다. 왕으로 입성하신다. 그리스도 사역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왕은 마차와 황금 말 이런 거 타고 많은 군사, 호위해서 신하들 대동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행차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데 그는 구약성경에 말씀했다. 예언했다. 겸손하여 한 번도 멩에에 매지 못한다. 한 번도 누가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하신 왕이다. 그러나 참된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은 중요한 그 시간표와 그때에 이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 무조건 헌신한, 이유 없이 헌신한 이름 없는 제자들이 나왔다. 그 중요한 헌신을 했다. 주가 쓰시겠다는 거기에 이유 없이 무조건 헌신한 이름 없는 제자들이 중요한 헌신을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축복의 대열에 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뭔가 발견한 뭔가 최고의 중요한 것을 깨달은 자가 분명하다. 대단한 축복이다.

여러분, 보통 교회 중요한 선교사역이나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데 헌금하면 어떤가? 제가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겠지만 거의 머리를 굴린다. 계산한다. 얼마 할 것인가? 내 사정, 우리 집 사정, 예금한 거 어찌고 저찌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명 걸고 집 팔아 낸다, 그런 거 잘 안 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쥐어 짜내는 설교 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통 이유 다 단다. 안 하거나 거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름이 없다. 나귀 주인 이름 없다. 제자 둘을 보내셨는데 물론 열두 제자 중 두 명이겠죠. 다른 제자들 이름 없다. 이 제자들, 무리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름도 빛도 없는 최고 중요한 헌신을 했다. 나귀를 끌고 오니까 즉시 제자들이 자기의 겹옷을 나귀 위에 펴서 즉 헌신이다.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라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무리들도 그렇게 하고 이름 없는 무리 제자들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의 겹옷을 저 같으면 양복을 벗어서 예수님 왕의 행차 아닌가? 길을 예비한다. 자기의 겹옷을 펴고,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두고 또 그 가지를 들고 앞뒤로 큰 소리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렸다.

3) 제자들과 무리들이 사탄을 꺾고 구원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구원의 주,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 대단한 것 아니다. 나귀 새끼 풀어 오라 심부름하고, 나귀새끼 주인 헌신하고 그 제자들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헌신을 했다. 겹옷을 나귀에 걸치고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꺾은 가지들 왕 되신 그리스도 찬양, 영광 돌리는데 흔들고 소리도 지르고 큰 소리로

했다. 이게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하고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주 찬양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그것을 찬양했다.

4)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가? 최고 축복을 받고 이 대열에 서게 된 자들

그래서 모든 능한 일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찬양, 영광을 돌렸다. 그리스도의 핵심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그 참된 왕을 찬양했다.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당연하고 이때 사탄과 흑암세력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 어떻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알았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겠는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하다. 최고의 축복의 대열 속에 선 제자들과 무리들이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2.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두 번째,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하자면 따끔한 일침 메시지를 하신 것이다. 따끔 메시지, 일침 메시지다. 제가 요즘 팔이 아파서 치료받느라 병원을 다닌다.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주삿바늘 보면 경기하는데 눈 감는다. 의사가 따끔하면서 놓는다. 얼마나 따끔하고 아픈지 따끔 메시지, 일침 메시지를 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열 속에 서거나 실수로라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 1) 굳이 억지로 복음과 전도의 대열에 방해하고 막는 자
- 2) 예수님의 대답 -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굳이 억지로 복음과 전도의 대열 속에 이상할 정도로 사탄 심부름하는 자들이 있다. 복음 막는데, 전도 막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중요한 사역에 방해하는 것이다. 그놈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 사탄의 앞잡이다. 이들은 지도자들이다. 잘 믿는다. 율법 다 알 뿐만 아니라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다. 나무랄 데가 없다. 저 세리와 같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서서 성전에 들어와서 얼굴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들으라고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이 많음을 감사하고, 십일조 철저히 드리고 콩, 벼 십 분의 일 다 드리고 뿌리의 채소까지 십 분의 일 다 드리고. 두 번씩 금식하고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중요한 때에 사탄의 심부름에 쓰임 받는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나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인데 당신 어째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것을 찬송했으니 참담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바리새인 시각이다. 얼마나 영안이 어두운가? 그리스도의 핵심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사역을 위해 가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일에 그것을 그토록 반대하고 싫어한다. 저렇게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는 무리들 책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대열에 서면 큰일 난다.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에 사탄의 심부름했다. 그리스도의 핵심사역, 즉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소원 속에 방해하는 일을 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데는 찾아다니면서 했다. 안 망하러야 안 망할 수 없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상하게 복음 막는데, 전도 방해하는데 그 대열 속에 선 자 많다. 조심해야 된다. 실수로라도 이 복음 방해하는데 막는데 서지 말아야 된다. 롬 16:19-20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된다. 사탄을 너희 발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축복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해라.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하여,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될 교회를 살려야 현장을 살린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리새인 가시노릇 하듯이 가라지 노릇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복음에 반대되는 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 있다면 무조건 어리석어야 된다. 난 몰라, 참여 안 할 거야, 안 들었음. 전도 선교하는데, 렘넌트 여름 사역에 중요하게 인도받자, 헌신하자, 캠프합시다,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는 복음이다. 바리새인처럼 율법, 정죄, 판단, 종교화되면 죽인다.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된다.

• 결론 -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복음 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끝이시다. 모든 것이다. 이 복음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멸망하는 사람들 특징은 복음 못 깨닫는다. 진정으로 감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제발 이 부분에는 바리새인과 그 대열속

에 끼지도 말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많은 공관복음서, 사도행전에도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참 빛,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주 오셨다. 빛이시다. 그것도 참 빛이시다. 구원과 생명의 빛이다.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접했다. 거기에는 열두 사도, 70인 제자들, 세리, 죄인들 빛을 받고 할렐루야 했다. 그런데 참 빛 와서 비추는데 딱 거절, 거부한 자 있었다. 비치는데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인들이다. 여기에는 끼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의 여정인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이 대열 속에 섰는가? 깨달았는가? 그것도 전도제자 되었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내가 그래도 축복받은 건가 정상인 건가 느껴졌다. 어제 핵심 가서 RUTC 뉴스 듣는데 이번 렘넌트 사역에 렘넌트대회에 신청받는 첫날 8천 명이 한꺼번에 등록했다. 하루 지나니까 만 명이 등록했다. 어제 뉴스 나오는데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 어제 렘넌트 담당하는 목사님 광고 영상에 나오는데 우리 다락방은 전도자들, 중직자들, 주의 종들, 렘넌트들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인도받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했다. 맞다. 이런데 참여하라.

주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전도자로 들어 쓰시겠다. 복음 때문에 쓰시겠다. 이러하면 이유 없이 아멘하고 오늘 나귀 새끼를 이유 없이 헌신한 나귀 새끼 주인처럼 그것도 주께서 나의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거의 거기서 행복하잖아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제자들,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 싹다 순교했다. 생명 건 제자가 되자. 잘 못하겠죠. 복음 하나 깨달은 것 때문에 전도 깨닫고 이 대열 속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이다. 여기에 생

명 건 헌신하는 그런 삶의 전도제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없다. 진짜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운데 이렇게 나왔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교회에 천지개벽의 일 일어났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 일어났다. 그 응답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사명자들, 렘넌트들 이번 여름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24로 하는 그리하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재앙시대 폭증시대, 영적문제 폭증시대되고 계속될 텐데 미래를 치유하고 살릴 미래의 재앙 막고 살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소원 계획, 구원사역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인도받고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받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다락방 전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